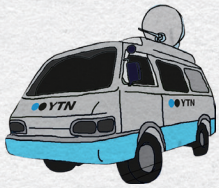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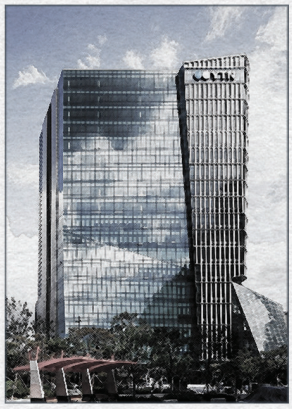
그림 **성승규** 작가(똘프의 그림여행 일러스트레이터)

그땐 그랬지...

완벽한 생중계를 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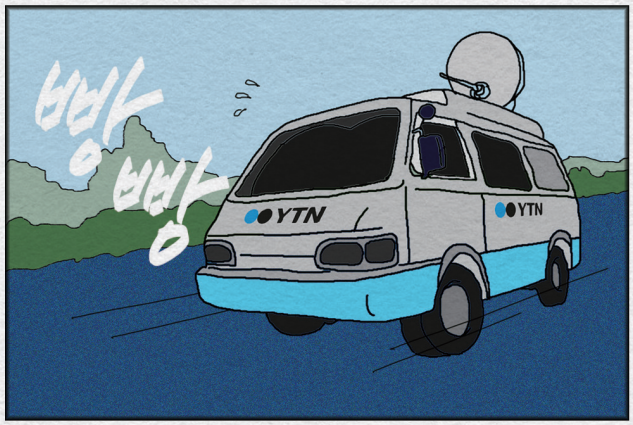
YTN 방송국



어느날 VIP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한다고
연락이 왔습니다.

지체없이 출발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에 보고후
함께 갈 중계진 등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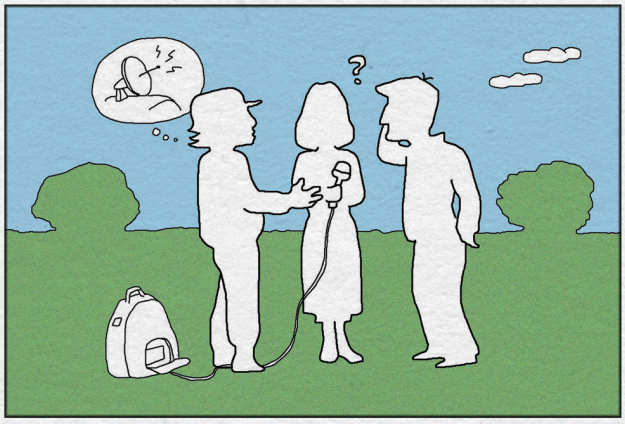
중계진들과 생방송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들을
체크한 후 부랴부랴 방송장비 등을 챙기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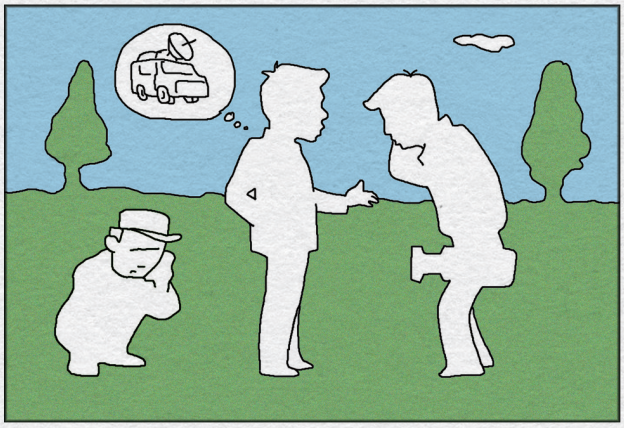


중계차에 몸을 던지듯 싣고 현장을 향해
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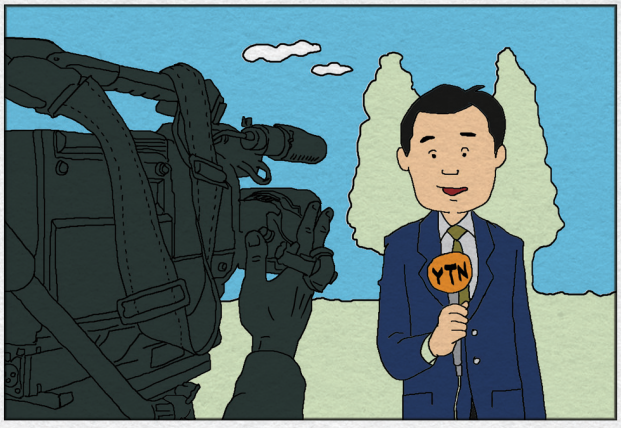
현장에 도착해보니
타사들은 다들, 취재인원이
한명에서 두명 정도로
생중계를 위해
LTE중계기를 들고 왔습니다.
YTN은 중계차가 갔으니
당연히 마이크로웨이브 망을
구성했지요.

타사들은 약간 저희에게 오버한다는 시선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.
그러던 중 VIP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발생합니다.





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VIP 행사에서는
VIP가 들어올때 테러 위험 때문에 통신을 마비시키거든요. 위 상황을 이해하시겠지요? ㅎㅎ



결과적으로, LTE중계기가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
저희만 열심히 중계를 했답니다.